

한국불교 역사의 새 중심

8월 29일 상량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문화벨트 중심, 시민공간으로 발돋움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위상 확립 계기
 현대·전통미 살린 절집 분위기 건축
 내년 6월 국제회의장 끝으로 완공 예정
 불자성금 30%에 그쳐 홍보강화 필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8월 29일 상량식을 갖고 그 위용을 드러냈다. 현재의 총무원 청사는 본 건물이 완공된 후 헐릴 예정이다. 사진=박재원 기자



◀어층 로비. 기둥과 전통 창살문, 승강기 위서산마애삼존불상 등으로 절집 분위기가 들게 할 예정이다. (시안)

조계종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8월 29일 상량식을 갖고 외형을 드러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단순히 새 총무원 청사를 건립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종단 분규의 상처를 안고 있는 현 청사를 헐어냄으로써 새로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겠다는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여줌으로써 1937년 조계종 총본산 건설 운동으로 완공된 조계사 대웅전에 이어 40여 년 만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총본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계종의 숙원 사업이었던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는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역사문화기념관은 불교문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과 조계종의 중무행정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한국불교역사기록보존소, 상징적인 문화 공연이 이루어질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불교문화종합공간의 막을 올리게 된다. 게다가 조계사 대웅전이 해체·복원되면 우정총국과 연계한 공원화 작업과 어우러져 조계사와 역사문화기념관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일대가 인사동과 우정총국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지이자 시민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신행·수행·포교 기능과 역사문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문화 기능이 맞물리면서 조계종 총본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1700여 년 동안 우리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지닌 이웃 종교에서는 이미 의미와 목적에 따라 여러 기념관을 세워 종교적인 필요성은 물론 사회적 위상을 높여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계사와 역사문화기념관이 있는 주변 일대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문화관광부 등 정부 기관과 경복궁과 비원 등 전통문화가 물려있는 한국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공 후 모습은? ‘역사문화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큰 용도다. 때문에 외관은 현대적이지만 내부는 전통 사찰 건축 양식을 도입해 최대한 절집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출입문부터 그렇다. 현관에 오르는 계단 옆은 전통 사찰 건축을 본떠 우주모퉁이 기둥과 탕주받침 기둥을 갖춘 거단석 모양으로 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면 원 모양의 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양쪽으로 범천제석상이 현관문을 지키고 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정면 승강기 위로 국보 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이 은은한 ‘백제의 미소’를 건넨다. 벽 쪽에는 마룻바닥 위에 원주 모양의 기둥과 전통 창살문으로 꾸며놓아 마치 실제 법당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살렸다. 열핏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건물 외관을 유리로 한 데에도 전통적인 맛을 살리려는 노력이 숨어 있다. 외관을 현대적으로 꾸민 것부터 그렇다. 사찰의 중심 건물은 대웅전인데, 역사문화기념관을 전통 한옥으로 지을 경우 앞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이 왜소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끔씩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바로 현대적으로 짓되, 외관을 유리로 장식하는 선택으로 이어

졌다. 역사문화기념관 앞쪽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이 유리에 비침으로써 대규모의 현대적 건물이 갖는 이미지를 상쇄시키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 역사문화기념관의 기본 용도인 불교중앙박물관은 지하 1층에 있다. 지하 2층에는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이 들어서며 지하 3층은 수장고와 유물보존과학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자리를 잡는다. 지하 4층은 주차장이다. 땅 위로 올라가면, 1층에는 한국불교역사기록보존소와 전시실이, 2·3층은 중앙종회, 교육원, 포교원 등 행정사무실 용이다. 4층에는 총무원장 집무실과 사서실(비서실에 해당) 외에도 종정 스님과 원로위원 스님들의 방사를 마련했다. 역사문화기념관은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5천여 평 규모로 밖에 서 보면 본 건물과 국제회의장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연결돼 있다.

건립예산 및 남은 일정은?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640억원이지만 부지 매입에 들어간 돈(290억원)을 제외한 실제 건축비는 380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190억원은 국고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190억원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조계종은 불자들의 성금 100억원을 모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해 8월 30일 모연 선포식을 가진 이후 각 사찰별로 모연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본사나 지역별 법회 등을 통해 불사 기금을 조성했고, ARS(자동응답) 방식 등을 통해서 일반불자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연한 금액은 8월말 현재 19억 원 정도. 여기에 건립 불사 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13억원을 합하면 목표치의 30%를 약간 웃도는 액수다. 11월께 1차 목표인 본 건물을 완공한 후 내년 6월에는 국제회의장을 완성해 최종 완공할 계획이고 보면 모연 금액 목표 달성은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홍보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 따라서 홍보 방안 등 모연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새롭게 짜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현 총무원 청사는 본 건물이 완공된 후 헐게 된다. 글=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후 조계사 주변 조감도.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영양,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할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질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